

전도서에서 만난 복음

서론

전도서는 욕기,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Song of Songs)를 기록했다면 잠언은 장년기에 기록했고, 전도서는 황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서’(코헬레트, קהלת)는 전도자, 설교자란 뜻입니다. 전도서는 자기 자신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체험에서 우러나온 삶의 진실한 고백을 절박한 심정으로 설파하고 고백한 지혜서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1. 저자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Solomon, שלמה)입니다(전 1:1).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명문 가문, 혈통이 성골 출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왕입니다. 왕의 특권과 권한이 어떠한지 우리는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2장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금하는 자가 없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날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용 병거가 1,400대, 그 병거를 움직이는 자가용 운전자가 12,000명이나 있었습니다(왕상 10:26).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왕상 11:3). 그는 궁궐을 짓되 은을 벽돌 같이 지었고, 백향목을 뿔나무 쓰듯이 내부를 장식했습니다(왕하 10:27).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의 지식과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전 1:16).

2. 기록 목적

전도서는 솔로몬이 살면서 자기 체험에서 얻은 인생의 진리와 행복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역설적으로 증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도록 기록했습니다

3. 기록한 연대

솔로몬 생애의 말기인 B.C. 935년 경에 기록하였습니다.

4. 전도서의 특징

전도서는 크게 전도서 1~6장과 7~12장으로 나눕니다. 전도서 1~6장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의 세계관인 히브리인의 허무주의(Nihilism)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과 지식과 계획을 비롯한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반부는 다른 잠언서와 달리 인간의 죽음 문제가 중심 주제입니다(전 1:11, 2:12~16, 3:19~21, 5:15~16, 6:6, 7:2, 9:1~16, 12:1~7).

전도서 7~12장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 그 이상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의미

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동경과 믿음과 사랑과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바람 잡는 것 같지만 그 바람 다음에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왕상 19:12), 폭풍 중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욥 38:1)이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길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5. 전도서의 중심사상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다’는 단어가 40번, ‘해 아래’라는 단어가 29번, ‘하나님’이란 단어가 40번, ‘지혜’란 단어가 50번 반복합니다. 이를 볼 때,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의미와 가치가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

요즘은 하루가 멀다며 새로운 지식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학문이 오늘에 구학문이 됩니다. 어제의 제품이 오늘에는 구제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나서고 새로운 무엇이 있는가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펴볼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전도서 말씀에서 첫째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국을 하나님 앞에서 근원을 찾고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삶의 즐거움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행복과 삶의 아름다움은 미래에 있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현재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살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01 전도서 1:1~18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1.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전 1:1~12).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가를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헛된 것을 구하면 헛되다고 했습니다(전 1:13~18).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3.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없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를 말해 보세요.

02 전도서 2:1~26

해 아래에서 수고는 무익하다.

1. 솔로몬은 해 아래 즐거움이 없다고 했습니다(전 2:1~16). 여기에서 참된 즐거움에 대해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지혜지나 우매자나 궁극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전 2:17). 여기에서 인간의 본분에 대해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열심은 헛되다고 했습니다(전 2:18~26). 그렇다면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 보세요.

03 전도서 3:1~22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1.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전 3:1~8). 때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노고에 따른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전 3:9~10). 수고에 따른 유익이 없을 때의 어려움을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수고에 따른 유익이 없었지만 이를 통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전 3:11~15). 전도서 저자가 발견한 진리를 말해 보세요.
4. 솔로몬은 공의롭게 재판을 했지만, 불의한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전 3:16~22).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말해 보세요.

04 전도서 4:1~16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1. 학대받는 자의 슬픔을 말해 보세요(전 4:1~4). 학대받는 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위로에 대해 말해 보세요.
2. 가진 자는 슬픔은 친구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전 4:5~17). 친구의 소중함을 말해 보세요.
3. 잊히진 자의 슬픔을 말해 보세요(전 4:16). 어떻게 잊히진 자의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말해 보세요.

05 전도서 5:1~9

하나님을 경외하라

1. 솔로몬은 바른 예배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전 5:1).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바른 예배란 바른 기도라고 했습니다(전 5:2~3).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서원을 지키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했습니다(전 5:4~9). 서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06 전도서 5:10~20

소유보다 누림이 복이다.

1. 솔로몬은 재물의 특징을 말씀합니다(전 5:10~14). 성도의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전 5:15~17).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인간의 행복을 자기 몫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전 5:18~20). 자기 몫에 만족한다는 뜻과 자기 몫에 만족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07 전도서 6:1~12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1. 솔로몬은 삶의 과정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전 6:1~8). 삶의 과정에서 행복을 누리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전 6:9~8).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강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전 6:10~12). 강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왜 행복한가에 대해 말해 보세요.

08 전도서 7:1~7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다.

1.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전 7:1전).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이 낫다는 뜻을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전 7:1하~4). 이 뜻을 말해 보고, 왜 그런가를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고 했습니다(전 7:5~7).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09 전도서 7:8~29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라-과유불급

1. 솔로몬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전 7:8~9). 유종지미와 인내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전 7:10). 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지혜는 유산보다 유익하다고 했습니다(전 7:11~15).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4. 솔로몬은 극단을 생각하지 말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전 7:16~29). 극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해 보세요.

10 전도서 8:1~17

왕명을 지키라

1. 솔로몬은 왕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전 8:1). 왕은 누구인가를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왕명을 지키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전 8:2). 광채가 난다는 뜻과 왜 광채가 나는가를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전 8:2~17).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을 말해 보세요.

11 전도서 9:1~18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1. 솔로몬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전 9:1).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의 기쁨을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인간 모두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했습니다(전 9:2~3전).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인간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전 9:3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해 보세요.
4. 솔로몬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전 9:4~18). 산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해 보세요.

12 전도서 10:1~20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가?

1.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전 10:1~3).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공손함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전 10:4~11). 분노의 위험성과 공손함으로 분노를 다스린다는 뜻을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여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전 10:12~17). 그 결실을 말해 보세요.
4.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남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전 10:18~20).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말해 보세요.

13 전도서 11:1~10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1. 솔로몬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전 11:1~2).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뜻을 말해 보세요.
2. 솔로몬은 현 상황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전 11:3~8). 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를 말해 보세요.
3. 솔로몬은 청년의 때를 즐겨워하라고 했습니다(전 11:9~10). 청년의 때의 특징과 경계해야 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 보세요.

14 전도서 12:1~14

창조주를 기억하라

1. 청년과 늙음의 특징을 말해 보세요(전 12:1~8). 청년의 시기에는 친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 보세요.
2. 청년의 시기는 올바른 혼인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혼인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말해 보세요.
3. 청년의 시기는 직업을 소명의 장소로 여기고,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직업의 소명의식과 바른 물질관을 말해 보세요.
4. 솔로몬은 청년의 시기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전 12:1, 9~14). 왜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를 말해 보세요.